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BEASTKEEPER  
가제 : 괴물 파수꾼  
저자 : Cat Hellisen  
출판사: Henry Holt and Co.  
발행일: 2015년 2월 3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판타지



- \* “조속하고 독립적이며 의지가 강한 주인공을 통해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통찰이 가득 전해지는 이야기. 시적인 묘사에 폭 빠져들게 된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 “대담하고 독특한 동화” – 「커커스 리뷰」

자주 집을 싸서 이사를 가는 생활에 익숙해진 새라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친구를 사귀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 언제 이사를 갈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 이별의 아픔만 커진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엄마아빠가 이삿짐을 챙기는 시점은 단순히 계절이 바뀔 때도 아니었고,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미 집이 반쯤 비어 있을 때도 있었다. 엄마는 ‘태양을 따라’ 이동한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추위를 극도로 싫어하는 엄마는 차가운 공기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해서 바로 옆에 난로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방안이 따뜻해도 창밖에 부는 바람소리에 이를 갈곤 했다. 아빠는 어디로 이사를 가든 아침이면 밖에 나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했다. 밤이면 온통 새카매진 손톱 밑을 한참 비누로 닦아내는 아빠가 새라는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든든하기도 했다. 같은 반 친구들의 부모님처럼 번쩍이는 큰 자동차도 없고 잔디가 예쁘게 정돈된 좋은 집도 없지만 새라는 셋이서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밤, 새라는 엄마아빠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울먹이는 엄마의 나직한 음성이 들렸다. 아빠는 더 참아보자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이제 열세 살밖에 안 된 새라가 듣기에도 엄마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 날, 엄마는 아빠와 새라를 남겨둔 채 집을 떠나버렸다. 무엇이 그토록 엄마를 못 견디게 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새라는 이해할 수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엄마가 집을 떠나고 며칠 지나 새라는 집 근처 숲에서 처음 보는 소년을 만났다. 몇 살은 더 많아 보이는 그 소년은 갑자기 나타나 먼저 새라에게 말을 걸고는 자신을 알란이라고 소개하고

급히 사라졌다.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던 부모님의 가르침과 늘 친구에 목말랐던 데다 엄마까지 사라져 더더욱 대화할 상대가 절실한 마음 사이에서 한참을 갈등하던 새라는 겨우 이름만 알려주고 그와 헤어진 것이 못내 아쉬웠다. 날이 갈수록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궁금했다. 하지만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새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엄마가 떠난 후, 아빠는 장도 제대로 봐오지 않고 늘 침울하게 앉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새라가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손목에 털이 역세고 긴 털이 자라고, 치아가 길어지고, 심지어 날고기를 그냥 우적우적 먹기도 했다. 이런 변화에 당황한 건 아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아빠는 자시는 ‘특별한 치료시설’에 들어가야 하니 새라는 새라를 세심하게 돌봐줄 집으로 가야 한다며 황급히 어딘가로 데려갔다. 태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빠가 새라를 데려간 곳은 숲 속의 습지 근처에 우뚝 서 있는, 낡고 곰팡이가 가득한 오래된 성이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웠다. 발톱이 길게 자라고 온몸이 털에 뒤덮여 곰과 늑대, 사자가 모두 섞인 듯한 무시무시한 모습의 괴물이 창살 뒤에 갇혀 있는데 그 짐승이 할아버지라는 것이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어릴 때부터 동화책 속에 나오는 마법사와 마법의 힘을 꿈꾸며 언젠가 그런 신비한 힘을 느껴보고 싶다고 꿈꿨던 새라는 바로 눈앞에서, 가족에게 대대로 내려진 마법의 힘을 마침내 목격했다. 그러나 눈 앞에 펼쳐진 마법이 새라가 기대했던 행복하고 밝은 힘이 아니라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어둡고 사악한 힘이 었다.

새라에게 난데없이 나타난 새하얀 까마귀 한 마리, 그리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알란을 통해 새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녀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아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에 분노한 마녀가 질투에 눈이 멀어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면 한 쪽이 괴물로 변하는 저주를 내린 것이다. 이 불행한 연인이 낳은 아들이 새라의 아빠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들이 최대한 저주와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도록 인간 세상으로 보냈지만 그 역시 저주를 피할 수 없었다. 아빠가 사랑에 빠진 사람, 새라의 엄마가 다름아닌 처음 저주를 내린 그 마녀의 딸이고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른 채 사랑하게 됐다는 기막힌 사실도 알게 된 새라는 직접 나서서 이 연속되는 저주의 고리를 끊기로 결심한다. 자신이 내린 저주가 자기 자식에게 되돌아오는 비극적인 악순환, 그래서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고 늘 무언가에 쫓기고 누군가를 미워해야 하는 삶에 갇힌 안타까운 이들을 새라가 구할 수 있을까?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심오한 의미가 절묘하게 조합된 매력적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캣 헬리슨(Cat Hellisen)은 남아프리카 출신으로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글을 쓰고 있다. 『When the Sea Is Rising Red』, 『House of Sand and Secrets』 등 판타지 소설을 발표해 왔다.

제목 : THE COLOR OF BEE LARKHAM'S MURDER

가제 : 비 라캄이 저지른 살인의 색깔

저자 : Sarah Harris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8년 5월 3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성장소설



- \* “독창적인 소설. 감명 깊고, 흡입력 있고, 동시에 서스펜스와 코믹한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 - 『Anatomy of a Scandal』의 작가 새라 본
- \* “감정적 요소가 충만한, 눈길을 잡아 끄는 미스터리 소설. 마크 해던의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에 비견할 만한 작품” - 「라이브러리 저널」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아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앞에 총천연색 모두 다른 색깔로 펼쳐져서 소리를 색으로 기억하는 아이가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된다. 남들과 많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외면 당하고 일상적인 소통도 쉽지 않은 재스퍼는 난생 처음 ‘살인의 색깔’을 본 이상, 분명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군가가 살인자임을 확신한다. 문제는 살인이 일어난 금요일 밤, 재스퍼의 기억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왜 아빠는 경찰 조사에서 재스퍼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할까? 뿌옇게 흐려진 기억 때문에 혼란스럽기만한데, 만약 재스퍼가 목격자가 아닌 살인자라면?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살인이 일어난 날, 그리고 온 동네에 분란을 일으킨 음악교사 비 라캄이 처음 이사온 이후 벌어진 사건들에 관한 기억을 정리하는 재스퍼를 따라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진실을 향해 간다.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도 공감각 이상증상이 있다고 진단 받은 재스퍼를 유일하게 이해해준 사람은 엄마였다. 엄마도 재스퍼처럼 소리를 색깔로 인지하던 사람이라, 사물이나 글자는 아무 문제없이 잘 보면서도 사람의 얼굴은 바로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 색깔과 옷차림으로 겨우 구분하는 어린 아들의 고충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다. 엄마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재스퍼를 돌보게 된 아빠는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평범한 말만 하길 원했다.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을 찾지 못한 재스퍼에게 유일한 낙은 창문 앞에 서서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쌍안경으로 관찰하는 일이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서 피어 오르는形形色색의 색깔들을 가만히 느끼고, 지저귀는 소리마다 예쁜 색깔이 뿜어져 나오는 새들을 보는 것이 외톨이가 된 재스퍼의 취미였다. 어느 날, 옆집에 호주에서 왔다는 음악 선생님이 이사를 오고 그 집 마당의 오크 나무에 앵무새들이 날아와 쭈알쭈알 지저귀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 집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귀여운 새들이 재스퍼의 주된 관찰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재스퍼처럼 새들과 노랫소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 특히 이웃들은 정반대였다.

비 라캄은 여러모로 마을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고향인 호주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며 앵무새만 보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나무 위에 앵무새가 좋아하는 씨앗을 올려다 놓기도 하자 어느새 대여섯 마리나 되는 앵무새가 한꺼번에 찾아와 종일 지저귀기 시작하자 조용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음이라며 괴로워했다. 게다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 앉은 시간에도 비 라캄은 피아노를 두들겨대며 평온한 마을에 또 한 가지 ‘소음’을 더했다. 은퇴하고 취미로 사냥을 하며 사는 데이빗 길버트 아저씨는 비 라캄과 정면으로 대립했다. 새들을 총으로 다 쏘버리겠다는 협박에도 비 선생님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칙칙한 삶에 생기를 불어 넣는 새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냐며 오히려 반발하는 소리를 재스퍼는 모두 들었다. 사실 재스퍼는 앵무새 때문에 비 라캄과 일종의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 재스퍼의 방안에서는 예쁜 새들을 제대로 보는데 한계가 있었고, 제대로 보고 싶다는 요청에 비 라캄은 자신의 집안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다. 재스퍼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살 많은 형, 루카스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것이다. 새 관찰에 심취해 있던 재스퍼는 수락했다. 살인이 일어난 날도, 재스퍼는 약속대로 편지를 전해주고 비의 방안 창가에서 오크 나무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온통 불쾌한 색깔이 가득한 부엌의 광경이 재스퍼의 눈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뒤였고, 재스퍼는 자신이 왜,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앞문에 서 있던 사람, 그리고 뒷문에 얼핏 형체가 보인 또 다른 사람, 둘 다 재스퍼가 아는 사람의 색깔이었다. 그들 중 누가 범인일까? 그런데 재스퍼의 옷에는 왜 피가 묻어 있었을까?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힘겹게 기억을 되살린 재스퍼는 자신이 살인자라고 확신했다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빠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낫이 나가버린 자신을 데려다가 피에 절은 옷을 벗기고 씻겨준 사람은 아빠였고,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세뇌시키기도 했다. 뒷문에 어슬렁거리던 색깔도 분명 아빠의 색이었다. 혼란스러워하던 재스퍼는 비 라캄이 루카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상하리만치 집착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에게 새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더 많은 일을 시키려 했다는 사실도 떠올린다. 그리고 새를 쏘 죽이겠다는 데이빗 아저씨의 협박을 들은 재스퍼가 크게 흥분해서 고향친 것을 약점으로 잡고 아빠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빠도 살인자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한 짓일까? 비 라캄이 루카스에게 보낸 편지를 장애 때문에 재스퍼가 루카스가 아닌 그의 아버지에게 잘못 전달한 실수도 살인과 관련이 있을까?

빠진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며 지워진 과거의 색을 조합해가는 재스퍼를 따라 가면서 만화경 같은 세상과 사람들을 색다른 시선으로 그린 특이하고 흥미로운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새라 해리스(Sarah Harris)는 저술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영국 여러 신문에 글을 기고해 왔다. 새라 스카이(Sarah Sky)라는 필명으로 YA 시리즈 『Jessica Cole: Model Spy』를 발표했다.

제목 : SHE WAS THE QUIET ONE  
가제 : 저는 쌍둥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자 : Michelle Campbell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8년 7월 31일  
분량 : 342 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It's Always The Husband』 작가의 신작
- ★ “필사적인 싸움과 갈등이 더해진 미스터리 소설” - 뉴욕타임스 북리뷰
- ★ “갈라진 믿음과 부서지기 쉬운 신뢰를 섬세하게 탐구한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엄마와 쌍둥이 자매,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던 세 사람의 삶은 암으로 마흔 살 젊은 나이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두 무너졌다. 아빠는 아이들이 다섯 살일 때 먼저 하늘로 갔고, 이제 남은 가족이라곤 서로 밖에 없다고 생각한 두 소녀는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과 만난다. 엄마와 아빠의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고 끝까지 엄마를 인정하지 않았던 할머니였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한 할머니는 오갈 곳 없는 고아가 된 로즈와 벨, 두 자매의 새로운 보호자가 된다. 그러나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로즈와 벨은 할머니의 권유로 기숙학교에 입학한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나온 미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오델 아카데미에 쌍둥이를 보내는 것이 정말 할머니의 진심 어린 배려인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다면서 할머니의 애인이 된 사람이 방해만 되는 소녀들을 멀리 보내기 위해 할머니를 설득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결정을 다시 없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꿈도 크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야심가, 로즈에게는 그랬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머리카락 색깔도, 눈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로즈와 벨은 그렇게 처음부터 정반대의 심정으로 오델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이 새 출발이 둘 중 하나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남은 한 사람이 살인자로 지목되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로즈와 벨이 상반된 마음으로 교문을 들어설 때 함께 이곳에 첫 발을 디딘 사람들이 또 있었다. 기숙사 지도교사로 새로 부임한 새라와 히스 도노반 부부였다. 오델 아카데미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두 사람은 두 살, 네 살짜리 아이를 키우며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나름 행복했지만, 좀 더 괜찮은 삶을 원했던 히스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영어나 가르치는 삶에 썩 만족하지 못했다. 그 때 두 사람의 모교인 오델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이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되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고,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기숙사 담당교사 경질된 후 그 자리를 채울 후보로 새라와 히스가 물망에 오른 것이다. 행복하게 잘 사는 모범적인 졸업생 부부를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망가진 학교의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회복해보려는 학교 측의 노력도 큰 영향을 주었다. 히스는 꿈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단

단히 마음 먹었다. 호텔 아카데미에서 제대로 인정 받고 교장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다. 새라 역시 남편의 그런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 보필하리라 결심했다.

학업성적을 잘 받아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인 로즈에게 새 학교는 천국과 다름없었다.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뛰어난 교사들이 포진해 있고, 같은 마음으로 공부에 매달리는 친구들도 많았다. 엄격한 규칙과 집에 돈이 많아서 입학했을 뿐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고 풍족한 집에서 버릇 없이 자라서 말쑥이란 말쑥은 다 피우는 부류도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로즈가 책에 파묻혀 사는 사이, 벨은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 엄마와 셋이 살던 시절, 돈은 많지 않았지만 늘 주변을 아기자기하게 꾸미길 좋아했던 엄마는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집 안팎과 두 딸들을 꾸미고 가꾸는데 온 정성을 쏟았다. 자유롭게 예술적 감성을 발산하던 엄마처럼 살고 싶었던 벨에게 기숙학교는 교도소나 마찬가지고, 로즈와 달리 공부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방황하던 벨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과 자연스레 어울리기 시작한다.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아이들, 선생이든 동급생이든 괴롭힐 대상을 찾아서 잔인할 정도로 못살게 구는 아이들과 점점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벨은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삶에 익숙해진다. 원리원칙주의자인 로즈가 벨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체 없이 학교에 고발하고 문제 아이들 중 두 명이 퇴학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갈라진다. 그런데 벨이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고도 퇴학당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교내에 흥흥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악화된다. 벨이 교사 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퇴학을 면했다는 이야기는 로즈의 귀에도 전해지고, 로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벨을 미행한다. 그리고 믿기 힘든 광경을 보고 만다.

히스 도노반의 차에 벨이 올라타고 두 사람이 활짝 웃으며 어딘가로 가는 사진이 누군가에게 포착되어 온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로즈는 벨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음을 감지한다. 익명의 제보자는 히스에게도 이메일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로즈는 훨씬 더 결정적인 사진을 입수한다. 로즈에게 치명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 벨은 한밤중에 로즈의 기숙사 방으로 몰래 들어와 노트북을 훔치려다 로즈에게 발각되고 두 사람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근처 호숫가에서 벨이 시체로 발견되자 로즈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도 바로 이 싸움 때문이었다. 정말 로즈가 몇 달간 여러 사건으로 사이가 크게 틀어진 친 자매를 긴 식칼로 잔인하게 찔러서 살해했을까? 로즈가 입수한 사진에는 히스와 벨이 학교 세탁실에서 관계를 맺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는데, 히스의 아내이자 기숙사 지도교사이기도 한 새라가 이미 남편의 이런 행동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다면? 사건 당일 벨을 호숫가로 유인한 사람, 그리고 벨의 뒤를 몰래 따라간 사람은 누구일까? 놀라운 결말에 이르기까지 뜻밖의 반전이 거듭되는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미셸 캠벨(Michelle Campbell)은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포드 법대를 졸업하고 맨해튼의 역사 깊은 법률회사에서 일했다. 이후 8년간 뉴욕 시 연방검사로 활동하다가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 셀러에 오른 소설 『It's Always The Husband』를 발표했다.

제목 : WHISPER ME THIS

가제 : 내게 속삭여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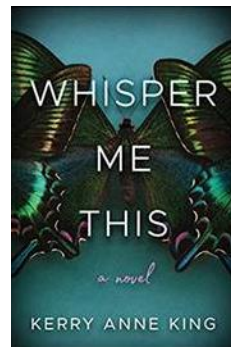
저자 : Kerry Anne King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8월 1일

분량 : 349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워싱턴 포스트 / 아마존 베스트셀러, 평점 만점인 독자 후기 100건 이상 등록

★ “학대와 거짓에 부서진 한 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전하는 소설. 작가는 이 소설로 가족 드라마의 전문가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 『The Weight of Lies』의 작가 에밀리 카펜터

서른아홉, 어엿한 성인인데다 열두 살이나 된 딸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메이지는 아직도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 컵가에 엄마의 목소리가 쟁쟁하다. 뭐든 아무지게 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다른 생각에 잠겨 멍해지고 실수가 잦은 메이지에게 엄마는 하나에만 집중해라, 딴생각 그만하라고 늘 핀잔을 주곤 했다. 그 중에서도 엄마가 특히 질색하며 싫어했던 메이지의 버릇은 ‘상상 속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말리’였던 메이지의 보이지 않는 친구는 어릴 적 어른들이 주변에 없을 때면 항상 나타나서 메이지의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겁이 많았던 메이지가 주춤하는 일들을 얼른 해보라고 옆에서 응원해주기도 하던 단짝이었다. 엄마는 그런 메이지를 발견할 때마다 화를 내기도 하고 펄펄 울기도 하고, 한 번은 아빠의 벨트를 들고 종아리를 철썩 내리치기까지 했다. 나이가 들면서 말리는 메이지의 삶에서 사라졌지만 그 이름과 엄마의 기겁하던 모습은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말리에 관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말리는 메이지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메이지와 7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언니라는 진실이 뜻밖의 타이밍에 드러난 것이다.

홀로 딸 엘리를 키우며 살던 메이지는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집으로 향한다. 명석한 두뇌를 타고나서 뭐든 잘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온 몸에 받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고 변변치 않은 일을 하면서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메이지는 자연히 부모님과 관계도 소원해졌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을 받은 가운데,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메이지는 큰 혼란에 빠진다. 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하고 크게 다친 것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완전히 접을 수도 없었다. 대체 두 분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딸을 데리고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간 메이지는 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한다. 엄마가 고이 간직해둔 물건들 속에서, 두 장의 출생증명서와 두 벌의 아기 옷이 나온 것이다. 출생증명서 한 장은 메이지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한 장에는 엄마

가 그토록 질색하던 이름, 말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몇 살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메이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였던 안방에 몰래 들어갔던 날을 떠올렸다. 그 날도 ‘상상 속 친구’인 말리가 부추기는 바람에 겨우 용기를 내어 몰래 안방에 들어가서 엄마의 옷장 구석에 세워진 큰 짐 가방을 발견한 메이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레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분홍색 담요 두 장과 함께, 처음 보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그 담요에 둘둘 말린 아기 둘을 양팔에 안고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눈 화장이 굉장히 짙고 메이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인 것만 제외하면 입 모양이며 표정이 분명 엄마였다. 그 날 본 사진이 엄마였으며 자신은 외동딸이 아니라 쌍둥이 자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메이지는 너무 늦게 다시 확인한 것이다. 어릴 때는 말리라는 아이는 없다는 엄마의 말을 철썩 같이 믿었지만 이렇게 진실이 드러난 이상 메이지는 언니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려면 이 오랜 세월 동안 엄마가 감추어온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

혼수상태에 빠진 엄마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지만, 메이지는 엄마가 오랫동안 기록해온 일기장을 발견한다. 아빠에게 쓰는 편지처럼 쓴 엄마의 일기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와 혼자 마음에 품느라 괴로웠던 일들이 날날이 적혀 있었다. 외동딸로 태어나 알코올 중독이던 부친과 가족을 보살피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던 모친에게 거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엄마는 열다섯 살에 위태로운 사랑에 빠졌다. 네 살 많은 학교 선배였던, ‘부츠’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진 그는 전교생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인기 많고 유명하던 기타리스트였다. 여느 여학생들처럼 몰래 그를 흠모하다 갑자기 부츠의 관심을 얻게 된 엄마는 덜컥 그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다. 부츠가 지독히도 충동적이며 성숙한 가장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그 즈음이었다.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이 ‘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철없고 자기만 알던 부츠는 술을 퍼먹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메이지의 엄마는 뱃속의 아기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고, 두 딸이 태어난 뒤 더욱 악랄해진 부츠로부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다. 메이지만 데리고 달아나기로 한 것이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악마의 손에 맡기고 온 딸, 말리도 되찾고 말리라 생각했지만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리는 엄마에게 절대 지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었고, 메이지가 친부로 알고 자란 사람과 만나 평온한 가정을 꾸린 후에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메이지는 엄마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직전에 쓴 일기를 통해 말리를 찾는 것만이 엄마가 평생 혼자 짊어진 짐을 더는 길임을 깨달는다.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싱글맘을 택한 자신의 삶이 엄마와 참 많이 닮았다는 사실과, 엄마가 감내한 고통을 떠올리며 아픈 과거를 무조건 묻어두는 대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귀한 교훈을 얻는다. 폭력의 상처와 인간의 강인한 정신, 회복력을 미스터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흥미롭게 풀어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케리 앤 킹(Kerry Anne King)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Closer Home』과 『I Wish You Happy』를 쓴 작가로 캐리 셰이퍼(Kerry Schafer)라는 필명으로 판타지, 미스터리 소설을 발표 했다.



## NON-FICTION

제목 : PROBLEM SOLVED!

가제 : 찾았다, 수학으로 들어가는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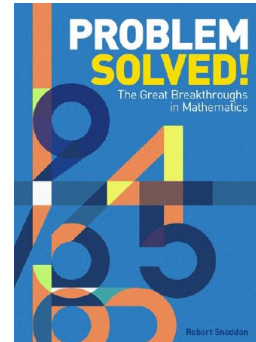
저자 : Robert Snedden

출판사: Arcturus

발행일: 2018년 10월 15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수학/역사



**\* 추상적이고 까다롭게만 느껴지는 수학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차 발전해온 과정을 다채로운 사진, 도표와 함께 짚막하고 재미 있게 정리한 책**

수학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학창 시절에 온갖 기호와 복잡한 공식으로 이루어진 문제를 풀다가 ‘대체 이런 건 누가 만든 거야!’라고 분통을 터뜨린 기억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만큼 수학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아무 쓸모도 없고 대학입시만 아니면 공부할 필요도 없는 과목으로 여겨진다. 수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문명 사회로 여기는 발전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은 수학 문제집과 씨름하는 학생들은 물론 수학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수학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왜’ 중요한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은 친근한 설명과 눈길을 모으는 컬러 사진, 흥미로운 역사를 접목시켜 그 이유를 제시한다. 수학이라는 학문에 앞서 숫자가 왜 필요했고 누가 맨 처음 수를 세기 시작했을까, 라는 가장 원초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여 숫자라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 발달하고 인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지극히 실용적인 목적에서 숫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속속 등장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간다. 수학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 숫자에 아무 흥미가 없는 사람도 충분히 재미 있게 읽을 만한 역사와 놀라운 사례들이 잘 정리된 책이다.

굳이 수를 세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사냥을 하고 나무 열매와 같은 식물을 먹고 살던 머나먼 옛날에 인류의 조상은 자연히 무언가를 ‘표시’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독이 있는 식물과 먹어도 되는 식물, 유독 사냥이나 낚시가 잘 되는 지점 같은 곳을 근처에 무언가를 새겨 넣는 식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흔적은 동굴 벽화나 수만 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동물의 뼈에 인위로 새겨진 눈금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저자는 이 눈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작위로 찍찍 그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수가 나뉘고 설명한다. 그 날 잡아온 동물이나 물고기의 숫자를 표시한 건 아닐까? 식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얼마나 더 잡아 와야 하는지 가능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신기한 흔적은 인류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양을 키우는

목동들이 하루가 저물 때면 양의 숫자가 아침과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길에 떨어진 돌 하나를 양한 마리로 삼고 돌탑을 쌓아가며 세어보기 시작한 것도 그러한 필요성에서 나온 시도였다. 계산을 뜻하는 영어단어 calculation이 라틴어로 자갈을 뜻하는 'calculus'에서 탄생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저자는 양자물리학, 혼돈 이론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수학의 역사를 이와 같이 동물의 뼈에 새겨진 인류 최초의 숫자에서 출발하여 천천히 짚어본다. 고대 이집트에서 첫 싹이 돋아난 기하학 이론, '영'이라는 숫자의 발명, 무한대의 개념이 불러일으킨 문제, 대수학이 활용되는 분야, 컴퓨터과학이 탄생한 후 현대에 이루어진 변화 등 숫자와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인류가 이룩한 가장 놀라운 성취가 수학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큰 거부감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수학 역사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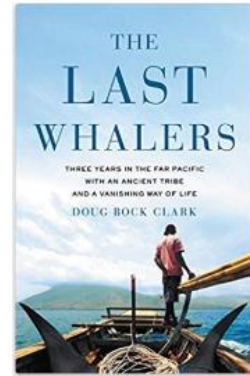
### <목차>

- 1장. 숫자 하나를 떠올려보자
- 2장. 수 체계
- 3장. 기하학의 시작
- 4장. 음악과 수학
- 5장. 원을 그리며 빙빙 돌다가 - 파이로 가는 길
- 6장. 영 - 아무 것도 없지만 중요한 숫자
- 7장. 대수학 - 알 수 없는 문제를 풀다
- 8장. 원근법
- 9장. 확률 - 가능성이란 무엇일까?
- 10장. 로그 - 계산이 쉬워진다
- 11장. 기하학이 다른 것과 더해질 때
- 12장. 미적분학 - 과학계의 혁명
- (이하 생략, 총 20장으로 구성)

### <저자 소개>

로버트 스넨(Robert Snedden)은 편집자, 작가로 30년 넘게 출판계에서 일했다. 의료윤리, 생태 서식지, 공학 등 광범위한 주제로 아동과 성인을 위한 책을 썼다.

제목 : THE LAST WHALERS  
가제 : 마지막 고래잡이  
저자 : Doug Bock Clark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9년 1월 8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인문/역사/문화



- \* “부족 사회의 명예와 사랑, 희생을 전하는 저자의 놀랍고 멋진 글은 눈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이러한 원시 사회가 모두 사라지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Pit Bull』의 저자 브론웬 디키
- \* “인간과 바다 괴물의 싸움처럼, 신화적인 싸움에 가까운 놀라운 이야기를 생생한 문장으로 그리며 우리가 얼마나 강인하고 동시에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 그 심오한 진실을 일깨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ribe』, 『The Perfect Storm』의 저자 세바스티안 정거

호주 대륙에서 북서쪽으로 960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화산섬, 렘바타에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부족이 있다. 500여 년 전부터 고래사냥이 생활의 중심인 라마레라 족이다. 현재 1,5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라마레라 족이 고래잡이에 뛰어나다는 사실은 1618년, 포르투갈 선원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인들이 ‘버려진 땅’이라 부를 만큼 물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상과 멀리 떨어진 이곳 렘바타 섬에서 3년에 걸쳐 총 12개월을 머물며 라마레라 족의 생활을 밀착 취재한 저자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고래잡이 부족의 흥미로운 생활 방식과 더불어, 길고 긴 전통을 뒤흔드는 문명의 입김이 가져온 안타까운 변화를 생생하게 전한다.

손으로 직접 깎아서 만든 나무를 못이나 드라이버 같은 도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서로 맞물려 끼우는 방식으로 만든 배에 올라 야자 잎으로 지은 돛을 펼치고 향유고래를 찾아 나서는 라마레라 족의 사냥 방식은 수백 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 고대부터 전해온 이들의 사냥법은 내내 지속되며 부족민의 삶을 번성하게 한 주된 원동력이었다. 라마레라 족이 사냥해온 고래는 식량 자원이기도 하지만 남은 고기를 염장하고 건조시켜 고산지대에 사는 다른 부족들로부터 해안 지대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쌀, 야채, 과일을 받고 대신 건네는 중요한 물물교환 물품이기도 하다. 주식이자 화폐이기도 한 고래 사냥이 매년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온 라마레라 족의 삶은 바로 인접한 곳에 항구가 건설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휴대전화와 보편화되면서 곳곳에 송신탑이 들어서고 바다로 나가는 배마다 모터를 달고, 발전기라는 것이 등장하여 전기를 생산하자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도 자연스럽게 함께 유입되는 등 기술이 이들의 원시적인 삶에 슬며시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이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 라마레라 족의 고유한 문화와 부족 자체가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 병든 조부모를

봉양해야 하지만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작살로 고래를 잡는 것밖에 없는 청년, 양가 집안의 극심한 불화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억지로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연인, 유난히 명석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부족 여성이 섬을 떠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 앞에서 갈등하는 상황,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에게 전통 기술을 물려주려고 애쓰면서도 고민에 빠진 아버지, 그리고 무서운 저주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부족의 주술사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라마레라 족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고민과 변화, 전통과 발전 사이에서 벌어진 대립과 그로 인해 갈라지고 무너지는 부족간의 신뢰는 안타까움을 더한다.

주어진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용기로 삶을 꾸려온 사람들과 어쩌면 글로 기록된 문화로만 남게 될 위기에 처한 소중한 문화와 세계화로 전 세계가 유니폼처럼 균일화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 <목차>

라마레라 족 / 지도 / 참고정보

머리말. 견습생이 얻은 교훈

1부. 1994-2014

1. 라마레라 오딧세이
2. 고래의 묘지에서 놀다
3. 자식을 잡아먹는 장어, 그리고 흑염소의 저주
4. 해로운 언어의 정화
5. 아들아, 고래는 이렇게 죽어야 한다
6. 웃음
7. 라마파의 방식

2부. 2015

8. 새해
9. 'Nekat' (강렬하다)
10. 결혼
11. 태풍 같은 삶의 한가운데 (이하 생략, 총 3부 13장과 맺음말로 구성)

### <저자 소개>

더그 북 클락(Doug Bock Clark)은 저널리스트로 「뉴욕타임스 매거진」, 「내셔널 지오그래픽」, 「GQ」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2016년 미러 상(Mirror Award) 결승에 오른데 이어 2017년에는 보도 상(Reporting Award)을 수상했다.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두 차례 선정됐으며 풀리처 센터에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 현재 뉴욕 대학교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초빙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LORDS OF THE DESERT

가제 : 사막의 제왕: 누가 중동을 지배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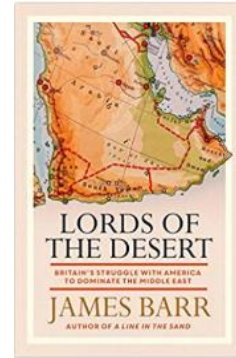
저자 : James Barr

출판사: Simon & Schuster UK

발행일: 2018년 8월 9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역사/국제정치



\* “2차대전 이후 중동의 권력을 두고 영국과 미국이 경쟁했던, 이제는 잊혀진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신작. 오늘날 이 지역이 혼란에 빠진 이유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중대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역사에서 핵심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전 국무차관, 하버드 대학교 교수 니콜라스 번스

\*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훌륭한 책” - 「타임」 지

국제뉴스에 수년째, 거의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과 갈등에 관한 소식을 듣다 보면, 문득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혼란이 정리되지 않는지 의아할 때가 있다. 무엇이 중동에 현재와 끝을 알 수 없는 분란과 갈등을 일으켰을까? 역사가인 저자는 그 해답을 중동이 아닌 백악관과 화이트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설명한다. 1945년 2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만 해도 영국은 중동 지역을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팔레스타인과 예만의 항구 도시 아덴을 직접 통치했고 이란의 왕권을 좌지우지한 것은 물론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의 왕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오만을 비롯한 페르시아 만 지역의 왕과 왕족을 나서서 보호한 것도 영국이었다. 왜 영국은 중동 지역을 반드시 수중에 넣어야만 하는 곳으로 여겼을까? 저자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표면적으로는 절대 깨지지 않는 동맹처럼 보이지만 이 지역에서만큼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된 영국과 미국의 치열한 대립, 그리고 이제는 거의 잊혀진 그 갈등이 현재 중동 지역 사태에 남긴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영국이 처음 중동 지역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지리적인 특징 때문이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교차로에 자리한 곳인 만큼 이곳을 통제해야 ‘제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동시에 인도와 다른 나라의 접촉도 막을 수 있다는 지극히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뒤늦게 중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미국은 목표도, 접근 방식도 영국과 전혀 달랐다. 처음부터 이곳의 석유 자원에 주목한 미국은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영국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중동과 교류할 수 있었다. 다른 국가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고립주의 노선을 택한 것이다. 반면 영국은 아랍과 유대인들의 강력한 민족주의를 이겨내지 못하고 한 세대 만에 오랫동안 장악했던 중동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 빈 자리를 차지한 미국과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고, 다시 원래의 자리를 되찾고자 반격에 나선 영국 정부와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된다. 저자는 영국의 핵심

스파이가 남긴 일기장 등 과거 기밀 정보였으나 새롭게 공개된 당시의 공식적인 문서와 오랫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1942년 이집트 엘알라메인에서 벌어진 전투부터 1967년 영국이 아덴을 포기한 배경, 냉전의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에 이집트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양국의 날카로운 대립을 상세히 분석한다.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을 식민지화하려는 듯이 접근하는 영국에 대한 반감과 반발이 널리 확산될 무렵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곳에 첫 발을 디딘 미국의 절묘한 개입과 이 때부터 중동 지역은 현재와 같은 거대한 갈등이 폭발하는 전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고도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에 군대를 보낸 영국에 파운드화로 보답하는 등 양국의 서로 밀고 당기는 관계는 현재의 복잡한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미국, 영국, 중동 지역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해묵은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가득 담긴 역사서다.

### <목차>

#### 1부. 문제의 시발점 1941-1948

1. 끝의 시작
2. 낡은 제국주의 식 명령
3. 문제의 시발점
4. 추파
5. 만만치 않은 상대
6. ‘유대인 문제’
7.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 2부. 중대한 양보 1947-1953

8. 한 바구니에 담긴 달걀
9. 더 거친 곳을 향한 탐험
10. 확률은 50대 50

(이하 생략, 14장까지)

#### 3부. 수에즈 운하를 향해 1953-1958 (15-22장)

#### 4부. 결사적으로 움켜쥐다 1959-1967 (23-27장)

### <저자 소개>

제임스 바(James Barr)는 옥스포드에서 현대사를 전공하고 파리 주재 런던 대사관,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일했다. 현재는 런던 킹스 칼리지의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Desert on Fire』, 『A Line in the Sand』 등이 있다.

제목: UNICORN TEARS

가제: 유니콘의 눈물: 실패하지 않는 창업 꿀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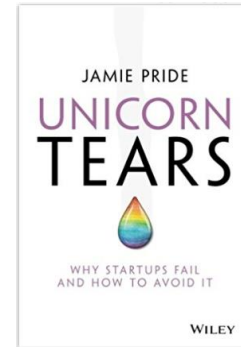
저자: Jamie Pride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8년 1월 3일

분량: 200 페이지

장르: 비즈니스



- \* “사업이 왜 실패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책” – 업체 ‘The Entourage’의 CEO 겸 창립자 잭 델로사(Jack Delosa)
- \* “아무거나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고 학문적이지 않은 것도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저자는 무수한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며 실제로 얻은 경험에서 우러난 귀중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한다.” – 업체 ‘The Impossible Institute’의 CEO 댄 그레고리(Dan Gregory)

한 해에 새로 문을 여는 사업체는 무려 1억 곳에 달한다. 시간으로 따지면 3초에 회사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엄청난 규모다. 그러나 제각기 야심만만한 계획과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출발한 이 수많은 회사들 가운데 3년 이상 유지되는 곳은 단 8 퍼센트에 불과하다. 20년 이상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직접 여러 차례 사업을 운영해본 저자는 이 통계적인 결과보다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업하면 다 그렇지’ ‘원래 사업은 어려운 거야’ 같은 생각이 과연 사실일까? 정말로 힘들여 투자를 받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세운 사업체에서 꾸준히 수익을 올려 보겠다는 목표가 처음부터 실패를 당연한 결과로 예상해야 하는 일일까? 저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며, 대다수가 실패하는 것이 결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은 아니며,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서 해결한다면 너무나 희박해 보이는 성공 확률 8 퍼센트에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창업에 관한 자료는 넘쳐나지만 실제로 사업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이 밝힌 전략이 의외로 드물다는 점에 주목하고, 벤처 투자자와 기업가로서 그 동안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해본 사람이 사업가에게 전하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이 책에서 전한다.

사업 실패가 경제적인 파산만 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주변에 사업 실패로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진 사람들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창업자의 절반가량이 크고 작은 정신 건강 문제에 시달린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에 실패하지 않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창업자의 30 퍼센트가 우울증을 겪고, 27 퍼센트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린다. 이와 같은 경제적, 인적 낭비와 고통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타트업이 실패 수순을 밟지 않도록 할 묘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저자는 대다수의 예상과 달리 불안정한 경제나 정치 상황, 외부 요인은 실패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창업자가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정보들, 사업을 엉뚱한 방향 혹은 잘못된 방향으

로 끌고 가는 근거 없는 판단이 실패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라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할리우드에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영화를 제작할 때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을 분석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효과가 입증된 그 핵심 원리를 스타트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개발한 ‘할리우드 해결법’을 소개한다. 더불어 투자자와 자본을 성공적으로 끌어 모으고, 창업자가 머릿속에서 떠도는 환상이나 부푼 기대감에 판단력을 잃지 않고 냉철한 현실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스타트업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 여덟 가지를 설명한다. 또 회복력, 인식 능력, 적응 능력 등 창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도 함께 알려준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착실히 준비하고도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시켜 사업의 뿌리를 흔드는 진짜 원인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스타트업 지침서다.

#### <목차>

머리말.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다!

1. 치러야 할 대가
2. F는 실패(Failure)
3. 창립자에 관한 오해
4. 아이디어는 절대 비싸지 않다!
5. 현금이 왕이다
6. 창립자의 적합성
7. 할리우드는 제대로 알고 있다
8. 할리우드 해결법™
9. 자금의 적합성

맺음말

#### <저자 소개>

제이미 프라이드(Jamie Pride)는 20년 넘게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일에 매진하는 벤처 자본가로, 기업가로 활동해 왔다.



제목 : LOGICAL FAMILY

가제 : 피보다 생각이 통하는 가족: 어느 동성애자의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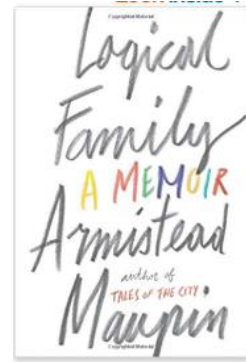
저자 : Armistead Maupin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7년 10월 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영리하고, 위트 있고, 멋진 이야기” – 「피플」 지 ‘이 주의 도서’ 선정 서평

★ “동성애자든 아니든, 가족을 찾아야만 했던 우리 모두를 위한 책. 모핀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스토리텔러 중 한 사람이다.” – 작가 닐 게이먼

★ “위트와 가슴 아픈 이야기 뚝뚝 뭉쳐진 책. 한 단락을 읽으면서 가슴 빠근한 갈망과 폭소를 함께 터뜨리게 된다. 생생하고 예리한 글” – 「뉴욕타임스」 북리뷰

집안 대대로 전해지는 가치관이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해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성인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그 익숙한, 혹은 강요된 가치관대로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선택권 없이 세상의 전부인줄 알았던 그 전통에 분노하고, 누군가는 기꺼이 또 한 번 전통이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한다.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동성애는 극도로 혐오하는 보수주의자 집안에서 태어난 저자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왠지 거부감이 드는 부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억지스럽게 애를 쓰다가 서서히 자신만의 가치관을 찾아가게 된 혼란스러웠던 삶을 이 책에서 회고한다. 자신이 처음부터 동성애자였다는 것, 한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전통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옳은 것과 익숙한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자는 인종차별주의와 여성혐오가 만연하던 남부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LGBTQ 운동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사회운동가가 되기까지 부딪히고, 개척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난 굴곡 많은 삶을 위트와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문장으로 우리에게 들려준다.

20세기 중반, 보수주의자들의 중심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저자는 동성애란 역겹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분위기에 눌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 보수주의자들의 사상을 그대로 따르고 1960년대에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사회주의자와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에 격렬히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종간의 분리 원칙을 지지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맞서는 연설을 할 만큼 그의 젊은 시절은 익숙한 전통을 잇고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단지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들어간 법대에서 공부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 저자는 고민 끝에 아버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또 하나의 직업인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신은 우리 집안의 남자들을 위

해 전쟁을 만드셨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하던 아버지의 말에 자부심까지 느낀 저자에게, 해군 입대는 인생이 바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해군 장교로 베트남 정글을 누비던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보다 선명하게 인지하고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확립된 것이다. 이 같은 결심은 제대 이후의 삶까지 이어져, 저자는 부모님의 염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작가의 길을 택한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의뢰로 매주 괴짜 같은 다채로운 인물들이 가상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도시의 이야기들(Tales of the City)'를 1976년 5월 24일에 처음 연재하기 시작하자 그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됐다. 5월에 시작한 연재는 한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가 생물학적인 가족이 아닌, 충분한 판단력을 갖춘 한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가족'을 꾸리는 출발점이 되었다. 과거와 현재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오가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가족을 넘어 논리적인 가족을 찾기 위한 과감한 도전을 해야만 하는 때가 찾아오며 그 도전을 거부할 경우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고 전한다. 작가 크리스토퍼 이셔우드(Christopher Isherwood), '간달프'로 잘 알려진 이안 맥켈런(Ian McKellen), 배우 록 허드슨(Rock Hudson) 등 유명인사를 포함한 저자의 논리적인 가족이야말로 그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도록 '키워준' 원동력이었음을, 저자의 유머러스하고 거리낌 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이 머리말, 21장, 맺음말로 구성

#### <저자 소개>

아미스테드 모핀(Armistead Maupin)은 총 아홉 편으로 구성된 『Tales of the City』 시리즈를 쓴 작가로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스토리텔러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 밖에도 『Maybe the Moon』, 『The Night Listener』 등을 썼으며 2012년 람다 문학협회(Lambda Literary Foundation)의 피오니어 상을 수상했다.

제목 : GETTING OFF

가제 : 제발 그만해: 불안과 중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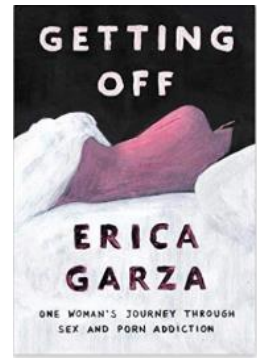
저자 : Erica Garza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18년 1월 9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 “여성의 관점에서 섹스 중독을 이야기하는 드문 책” – 「Vice」
- \* “포식 동물 같은 남성의 성적 행동이 이제야 전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른 시대에 꼭 맞는,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 – 「엘르 매거진」
- \* “솔직한 고백에 포르노 이용도와 섹스 중독에 관한 통계자료가 가미된 이 책에서 사정없이 쏟아낸 저자의 이야기는 암전하고 고상한 책 하는 사람들을 움찔하게 만들 것이다” – 「북리스트」

성적인 만족을 느끼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온 한 여성이 섹스와 포르노에 중독된 채 인생의 다른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았던 20여 년의 삶을 용기 있게 고백한다. 포르노와 오르가즘에 집착하고,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낯선 사람들과 만나고 희망을 품었던 관계는 늘 실패로 돌아오고 그런 자신에 대한 극도의 수치심이 머릿속을 새카맣게 만들어버리는 악순환,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 허우적대던 기억을 꼬집어내 펼쳐 보이는 저자의 글은 과감하고 대담하지만, 절망적인 과거를 회상하는 여타의 글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제대로 된 인간’이 되려고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온갖 고통과 상처,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두려움과 죄책감, 극심한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 외로움에 빠져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얼마나 심각한 폭력과 학대가 되었는지 차분하게 되짚어본다. 그리고 세상에 영영 적응하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과 절망에서 반복된 그 비정상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스앤젤리스 동부에서 하와이로, 동남아시아로, 방콕과 발리로 떠돌며 때로는 도피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서도 헤어나라 애썼던 시간들을 있는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

평범한 중산층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저자는 또래 아이들처럼 TV와 비디오 게임에 푹 빠져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처음 포르노를 접한다. 처음에는 그리 강도가 세지 않은 유치한 포르노를 호기심에 보던 것이 사이버 섹스와 인터넷 포르노로 이어지고 그런 영상들에 심취할수록 사회적인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20대를 하룻밤 보낼 상대를 수도 없이 만나고 누구와도 진지한 관계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던 저자는 대학 졸업 후 하와이로 떠난다. 이미 그 때부터 더 자극적인 것, 더 위험하고 짜릿한 것을 갈구하는 자신과 한바탕 욕구를 해소한 뒤 무겁게 찾아오는 수치심이 번갈아 덮쳤지만 저자는 그럴수록 섹스 중독 증상은 더 심해졌다고 회상한다. 30대에 접어들고 도무지 해소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음침하고 강도 높은’ 시도를 이어가던 저자는 어느 날 문득, 이 기계적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분별한 성생활이 인간관계를 모두 망쳐버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망친 근본 원인임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 ‘제발 그만해’라고 외치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의 욕구만을 위해 모든 것을 무시해온 지난날을 되돌리기 위해 저자는 각종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에 찌들어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진 자신을 회복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적 욕구에 무서울 만큼 집착한 원인이 극심한 불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과정, 실패가 거듭됐지만 그 질긴 습관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동안 어쩌면 벗어날 수도 있겠다고 처음 느꼈을 때 난생 처음 느낀 희망과 희열, 그리고 그 소중한 희망을 붙들고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된 과정을 아무 꾸밈없이 전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중독과 인터넷 문화가 우리 사회에 발생시킨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

#### <목차>

시작하면서

머리말. 수치심 중독

1. 착한 아이
2. 이상한 아이
3. 아픈 아이
4. 여자친구
5. 못된 아이
6. 도망치는 아이
7. 절박한 아이
8. 호기심 많은 아이
9. 그 아이의 내면에는
10. 아이와 여성의 만남

#### <저자 소개>

에리카 가자(Erica Garza)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논픽션 과정을 마치고 「살롱」, 「마리끌레르」, 「로스앤젤리스 리뷰」 등 다양한 간행물에 에세이를 기고했다. BBC 라디오 4 등에도 출연했다.